

## 초호황에도 노동자 대우는 전근대적...

### 밖으로는 노동존중 강제노동 금지. 안에서는 미리미리 고객 납품 기일이 최우선 80년대 현장도 아니고 휴가 외출도 통제...대표이사 이윤앞에 멈춘 노동자 건강권

#### 리노노동자가 나선 이유

반도체 호황 앞에 노동자 권리는 뒷전인 회사가 노동조탄압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를 위해 노무관리 전무가 채용도 서슴지 않고 있다. 그 채용에 돈 쓰는 것은 노조 인정보다 우선한다. 5년째 이익률 40%에 다라는 회사의 민낯.

“모든 임직원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비인격적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윤리적이고 노동인권 안전보건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리노공업의 진짜 모습. 주 60시간이 넘는 노동시간, 주말도 없이, 한사람이 두세 사람 몫을 해야 하는 살인적인 업무강도. 연차사용도 자유롭지 못하고 점심시간 외출도 통제되는 리노공업. 그나마 노동조합이 생겨 점심시간 외출이 가능하게 됐다. 휴게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건 너무도 당연한 현실. 대표이사는 “돈 많이 쫓는데 뭐가 문제야”는 태도. 이도 성과급 비중이 높아 조금만 잘못하면 100% 200% 삭감되는 처지. 고임금은 철저히 통제수단일 뿐.

이런 환경에서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선택해 불통과 노동 환경개선을 위해 나섰다. 그러나 회사는 정당한 교섭도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도 합의한 게시판 제공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다. 회사가 선택한 것은 노동조합 인정보다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 노동조합 탄압과 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교섭대표와 교섭위원 출입도 회사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통제하고 있는 상황.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임시노조사무실인 천막도 설치한 상태.

이 모든 과정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 것. 심지어 엄청난 이익이 있음에도 식도 6일 부산노동청 앞에서 열었다. 노조 사 질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햄이 구워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는 기자회견을 통해 회사의 감시와 통제 전근대적 노무관리를 폭로했다. 한 조합원은 “아들이 세 살이 되었지만 아직 아빠 얼굴을 모른다”며 살인적 노동시간을 현실을 폭로했다. 반도체 호황이라는 이면에는 “대표이사가 애지중지하는 닭과 오리가 뛰어다닐 그린라운드 노동자가 밟을 수도 없고, 작업 중간 휴식시간에는 그냥 작업대 위나 바닥에 앉아 쉬어야” 하는 현실. 호황의 이면이 전근대적 인식과 현실이 난무한

져 나오는 날은 재수가 좋다고 할 정도로 “밥에서 인심 난다”는 말도 무색한 현장이었던 것.

리노공업 현장 사훈은 “미리미리, 그리고 모르면 물어보라”로 겉으로는 준비성과 소통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노동자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회사가 아니라 미리미리 외면해 온 회사”라 비판했다. 이에 노동자는 현재

“미리미리 단결하고, 모르면 서로에게 물어보라”고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리노노동자는 외친다. 회사는 노동조합을 즉각 인정하고 성실한 교섭에 나서라.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과도한 업무강도를 개선하라. 기본급 중심의 안정적인 임금 체계로 개편하여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라. 일방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자와 소통을 강화하라. **[부산양산금속노동자**



▲ 6일 리노공업지회 노동자와 부산양산지부 간부가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다음 아닌 리노공업 회사의 전근대적이고 비인권적 노무관리를 폭로하고 성실히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 노동조합 인정 목소리도 높였다. 참가자들은 노동자가 존중받는 환경, 노동자 권리가 인정되는 일터를 기필코 쟁취하겠다는 결의를 높였다. 이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6일 국회에서 '외투기업 철수 집단해고 3년, 노동자의 삶과 고용을 묻다' 토론회가 열렸다. 2023년 한국외이퍼의 일방적 청산 이후 해고 노동자들의 삶을 되짚어본 이번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의 뼈아픈 증언과 현실적인 정책 대안 요구가 쏟아졌다.

강신하 뚜벅이재단 이사장은 "집단해고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라며 "이번 토론회가 노동자들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세상,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노동자의 삶이 진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대회를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제는 외투 기업의 투자 유치만이 아니라 철수 과정에서의 고용 책임, 그리고 해고 이후 삶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까지 함께 실천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증언에 나선 최만복 조합원은 "한국외이퍼에서 12년을 근무했지만, 이직 과정에서 경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며 "노동강도가 높고 산재가 일상적인 주물 공장 등을 거치며 주야 교대근무를 해도 월급 300만 원을 넘기기 어려웠고, 오히려 과거 노동조합 활동이 취업의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고 토론했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신미향 조합원은 "13년을 근무한 50대 여성 노동자로서 재취업 시장에서 나이와 경력은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등 여러 직종에 도전해 보려 했지만, 기존 생산직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고 결국 열악한 생산 현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손정순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외이퍼 사례는 중장년 장기근속 제조업 노동자가 지역의 불안정 노동시장으로 재편입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응답자의 약 68%가 구직의 가장 큰 장벽으로 '나이'를 꼽았고, 재취업자의 약 77%가 이전보다 임금이 하락했다고 답하는 등 수치상 취업률은 높지만 실상은 짧은 취업과 이직·구직을 반복하는 명백한 하향 취업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성 및 노조 활동 경력에 대한 차별이 재취업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 취업 스트레스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집단해고 이후 인간관계 축소

와 사회적 고립감, 무력감 등 노동자들의 심리적·사회적 위기도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손정순 박사는 "많은 해고 노동자들이 공공 직업알선기관과 인터넷을 통해 구직 활동을 했으나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는 실효성이 낮았고, 민간 고용서비스 역시 단기 알선과 불안정 노동 제공에 그치는 등 한국의 고용서비스 체계가 지닌 한계가 뚜렷했다"고 진단하면서도 "반면 뚜벅이재단이 조합원들에게 정서적·심리적 지지대이자 집단 안전망 역할을 해낸 점은 노동자들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얼마나 빨리 취업했느냐보다 고용의 지속성과 일자리의 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중장년 제조업 해고 노동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포괄적인 '전환 지원센터' 설립을 비롯해, 불법·편법 고용 관행이 만연한 반월·시

고는 개인의 일상생활 자체를 붕괴시킨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인권 침해"라고 규정하며 "취약 노동자를 우선하여 소득 보장, 심리 상담, 재취업 등을 통합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포괄적 구제가 완성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 역시 "해고 노동자들이 연대 정신으로 설립한 뚜벅이재단은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지역 사회 안전망의 선도 사례"라고 평가하며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집단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상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은 "기존 고용서비스가 맞춤형 지원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고용센터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특화 지원이나 별도의 특화 센터 개설을 검토하고, 현장의 '가짜 3.3 계약' 등 불법적인 고용 관행에 대한 근로감독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외투기업 집단해고 그 후 3년... "일자리 질 하락·사회적 고립 심각"

국회서 '한국외이퍼 집단해고 노동자 3년의 기록' 토론회 열려...  
현장 증언 및 실태조사 바탕으로 구제 방안 모색

화공단 등 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강력한 특별근로감독과 사회적 고용기금 확충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유림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AI 발전 등 복합 전환의 압력 속에서 한국의 생산직 노동자들에게 집단해고는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협이 되었다"라며 "모든 산업 정책에 고용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고 초기업단위 교섭을 활성화할 금속노조의 핵심 과제로 안고 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서채완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해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재단법인 노동존중세상을 향한 우직한 걸음 뚜벅이'는 2023년 한국외이퍼 집단해고 사태 당시 노사 합의를 통해 쟁취한 사회적 고용기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해고 노동자들의 재취업과 심리치유, 권리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금속노동자]

[토론회자료집]

